

속삭임과 귀 기울임

오유나*

저는 일기 쓰기를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생활을 기록하는 것이 일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기 쓰기를 ‘좋아한다’는 말에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한다고 하는 ‘일기 쓰기’는 생활의 기록을 넘어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짤막하더라도 순간적인 기분이나 느낌, 생각들을 끼적거리놓는 것입니다. 그 끼적거리는 곳이 일기장이다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그 쓰기 행위를 저는 ‘일기 쓰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기는 대부분 일상의 생활을 반성하고 자신과 삶에 대해 반추하기 위해 쓴다고 하지요. 물론 일기가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펜이 종이를 스치는 느낌, 손에 힘을 주어 꾹꾹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 좋아서 일기를 씁니다. 마치 꽃모양이나 이파리 모양이나를 떠나서 가위로 종이를 오리는 느낌 자체가 좋아서 공작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풀풀 올라오는 나무 냄새, 양 볼에 착 달라붙는 겨울의 차가운 공기에서부터 석양을 보면 가슴속에 아는 닿을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 비 오는 날엔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우울함까지 생각날 때마다 일기장에 쓰다보면, ‘일기 쓰기’가 하나의 취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끔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를 쓰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언가를 쓰려고 하지만 사방이 방음벽으로 된 좁은 방안에 갇혀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02학번, 제2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에서 「근대 서구인의 눈에 비친 일본: 1893년 시카고 박람회를 중심으로」(‘일본과 국제 관계’ 리포트, 담당교수 장인성)로 우수상을 받았다.

리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고정된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쌓이는 기억, 고민, 아픔들 하나하나가 수많은 자아가 되어 언어화되지 않은 상태로 마음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것의 소리에 귀 기울여 언어의 형태로 바꾸는 ‘내 안의 또 다른 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 ‘글을 쓰는 나’가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웅웅거리는 소리만 듣고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어 의미의 표면을 미끄러져 내리고만 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자신의 내면을 맑게 유지하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히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가’를 정교한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좀더 창조적으로 접근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글쓰기는 이렇게 자기 내면에 대한 귀 기울임일 뿐 아니라 타인을 향해 말을 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것, 읽는 것들은 모두 어떠한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며 새로운 질문으로 연결되는 과정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읽기와 쓰기를 통해 은연중에 많은 다른 사람들 의 특정 주제에 대한 대화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진다면, 이 역시 글쓰기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면의 자아를 들여다보는 노력 이외에 타인들이 나의 생각을 쉽게 이해하고 또 그들의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규칙을 지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치 배구 경기에서 경기장 안의 다른 사람이 받아칠 수 있도록 공을 쳐 올려야 하듯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영역의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글을 받아쳐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논리, 명확성, 구체성 등의 규칙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의 여러 강의에서 제출하게 되는 여러 서평 과제, 리포트 과

제도 위와 같은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입학하고 나서 리포트를 처음 써볼 때는 뭔가 남과는 다르고 멋지게 보이려는 욕심도 있고 현학적인 표현을 쓰거나 유명한 학자의 말을 인용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보통 사람인 나로서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쓰는 글이 하나의 문제의식에 대한 큰 맥락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암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화의 장(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니 글쓰기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대화에 살며시 끼어들어 ‘속삭일’ 수는 있겠다는 마음가짐이었지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해하고 스스로 보탠 생각을 얼마나 진솔하게,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면에 대한 귀 기울임은 초보적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언어로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타인들을 향해 열린 태도로 말을 걸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좀더 구조화하고, 문장을 더 매끄럽게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학기 ‘일본과 국제관계’라는 수업에서 「근대 서구인의 눈에 비친 일본: 1893년 시카고 박람회를 중심으로」라는 기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의 경험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느낀 궁금증을 더 큰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키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근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말 한정된 개인적 체험이었습니다. 미국 배낭여행 중에 친척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 벽에 커다란 기모노를 마치 예술적인 장식품인 것처럼 걸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척분의 개인적인 취향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후 다른 집에서는 일본식 목판화가 그려진 병풍을 쳐놓는 것도 본 적이 있었

습니다. 미국·유럽의 서구 나라에서는 ‘green tea’ 앞에 꼭 ‘Japanese’라는 수사를 붙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도 차(茶) 마시는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데도 말이지요. 제가 일본인인 줄로 알았던 어떤 상점 주인은 일본의 방식대로 식품을 손수 개배하여 숙성시켰으며, 자랑스러운 듯 어설픈 일본어로 자꾸 말을 걸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문명 총돌론으로 잘 알려진 사무엘 헨팅턴의 논문을 읽으면서도 그가 일본의 문화를 일본 문명('Japanese civilization')으로, 중국 문명과는 다른 독특한 문명권으로 구분해놓았다는 점이 특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미국 곳곳의 아시아 박물관을 가보면,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Japanese culture is difficult to understand)고 하는, ‘일본이 정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듯하여 알아봤지만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고백이라도 하는 것 같은 안내판의 설명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제력이라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력 이외에 어떤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일본과 달리 중국은 최근 들어 그 잠재력을 세계가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 천에 금박 글씨, 지저분함, 촌스러운 용, 값싼 노동인력 등으로 대표되는 경우가 많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러한 궁금증이 단지 느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하나의 개인 체험을 단번에 보편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외교』라는 책을 읽는 중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0년대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연설하면서 일본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다른 점, 특히 일본인이 백인과 가까운 황인으로서 미국인과 친화력을 갖는 점을 언급하는 것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오래 전에도 제가 접했던 것처럼 일본·일본인·일본 문화를 동경하는 서양인이 있었다는 점, 게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저는 서양인의 일본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왔고, 제국주의·인종주의 등 근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을 기말보고서의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집필 과정에서는 기준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또 다른 대화의 물꼬를 터나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스스로도 갈피를 잡지 못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조그마하게나마 시작되었던 문제의식이었기에, 흥미를 갖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고 과정을 통해 논리적 구조나 문제의식과 더불어 인쇄 매체 자체로써 드러나는 가독성 역시 중요한 요소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리포트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몰랐던 비문들이 매우 많았고, 번역 투의 문장이 많아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원문을 그대로 제시하는 한편 우리말로도 정성스럽게 번역하는 것도 새로운 대화 참여자들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글쓰기 행위에 대한 사유는 많은 작가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 제 삶과 글쓰기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우연히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에는, 지금 나 자신이 말하고 있는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내면의 속삭임은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글을 쓸 때와 말을 할 때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수많은 ‘일기’를 쓰면서, 타인들을 향해 말을 거는 글을 쓰면서,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는 맑고 싶습니다. 또 타인을 향해서는 열려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 속에 진짜 삶의 고민 속에서 변화하는 나, 변화하고자 하는 나를 담고자 합니다. 5